

# 음주운전

술을 마시면 간에서 맥주 한 캔 정도의 술을 분해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술이 이와 같은 신진대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술이 운전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운전을 하는 데는 심리-운동 협응능력, 시각능력, 사물에 대한 지각능력, 추적능력, 정보처리능력과 주의 집중의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능력과의 관계를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술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술을 먹은 양만큼 운전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졌다. 술이 운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 심리 - 운동 협응능력 저하

술은 우리가 걸을때 균형을 유지해 주는 신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은 걸음이 비틀거린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면 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전하는데 영향을 준다.

## ■ 시력의 지각능력 저하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려면 자신의 시각을 통해서 앞을 잘 관찰하면서 순간순간 위험한 물체나 다른 차를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의 두뇌가 첫째, 안구의 운동능력을 둔화시키고, 둘째, 시야의 인식하는 영역이 줄어들어 앞을 보면서도 옆의 물체를 인식하거나 측면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시의 판단능력이 감소하여 차선을 지키거나 옆에서 달려가는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셋째, 정확하게 사물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시각능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 ■ 판단능력 감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시각이나 청각 등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순간순간 종합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리가 복잡하고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더 순간 판단능력이 필요한데, 술은 우리의 이러한 인지적인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 ■ 차선을 지키는 능력 감소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전방과 측면의 거리의 판단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능력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졌다.

## ■ 정보처리능력 둔화

술은 우리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둔화시킨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속도가 아주 느린 컴퓨터로 복잡한 통계나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고는 순간적이라고 한다.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술이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 ■ 주의 집중능력 감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첫째는 차선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하면서 운전신호, 앞의 차, 보행자, 가야 할 방향 등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순간순간 주의집중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신 운전자에게 숫자를 두 자리로 나누는 간단한 셈을 시켜 보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만큼 주의력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 〈술의 양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

약 68kg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성인이 한 시간 안에 맥주는 한 캔을 단위로, 소주는 한 잔을 단위로, 포도주는 한 글라스를 단위로, 위스키는 원샷을 단위로 술을 마셨을때,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BAC)가 올라간다

한시간안에 마신 술의 양	1	2	3	4	5
혈중알코올 농도(%)	0.01	0.04	0.06	0.08	0.10

운전자의 성별, 술 마실때의 기분등의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BAC가 0.08이면 운전자의 운전기술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즉, 한시간 내에 3~5잔 정도의 술을 마시면 운전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 출처 : 알코올상식백과